

Kodex^{ETF}와 함께 만드는 Viewtiful Week

조수민 책임매니저
Vol.7 2024.11.19

Executive Summary

- 정치 불확실성 속 높아진 시장금리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매출총이익률 둔화폭과 가이드스 예상 상회 여부가 관심
- 트럼프 당선 후 낙폭 과다로 저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코스피 주목

●●● 이번 주엔 무엇을 볼까

정치 불확실성+
연준 인사들의 매파발언:
금리↑, 달러 강세 ↑

지난주 뉴욕 3대 지수는 약세 마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과 정책 관련 불확실성으로 증시는 차익실현 압력에 노출됐다. 주요 지표들이 예상을 상회하고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으로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전주비 각각 5bp, 14bp 상승한 4.30%, 4.44%을 기록했다(15일 기준). 달러인덱스 106.69pt로 마감하며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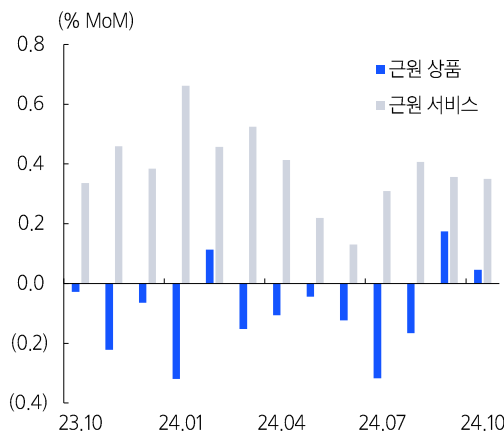
지표 호조: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10월 미국 헤드라인과 근원 CPI(소비자물가)는 전월비 각각 0.24%, 0.28%(YoY 2.60%, 3.33%) 상승해 예상에 부합했다. 다만, 전월에 이어 상품물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된 점이 부담이었다[그림 1]. 10월 PPI(생산자물가)도 전월비 0.2% 상승해 예상에 부합했으나, PCE 산출에 근거가 되는 항목들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같은 날 오후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한 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면서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키웠다. 10월 PPI로 추정된 10월 근원 PCE는 9월(2.7%)보다 높은 2.8%로 상승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10월 소매판매도 계절조정 기준 전월비 0.4% 증가해 예상치(0.3%)를 상회하며 견조한 소비 여력이 재확인됐다. 이에,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60%대 초반까지 후퇴하면서 시장 금리 상승을 자극했다[그림 2].

이번 어닝 시즌의
클라이막스:
20일 엔비디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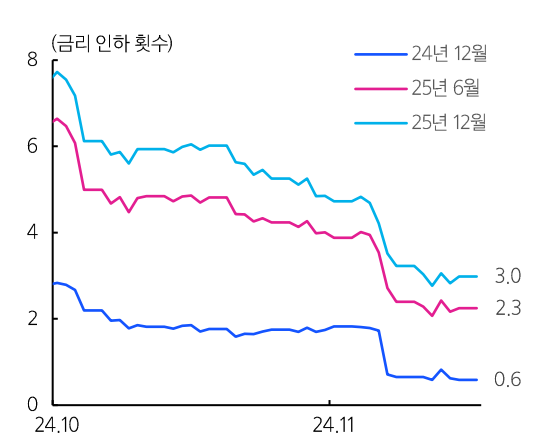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엔비디아 실적(20일, 현지시간)에 쏠릴 전망이다. 트럼프 체제하에 반도체 무역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로 엔비디아는 지난 5거래일 중 4거래일 하락했다(15일 기준). 반면, 실적 기간 동안 빅테크 기업들의 AI CAPEX 투자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엔비디아 이익 전망은 더욱 높아졌다. 매출총이익률(GPM, 2분기 75.7%, 컨센 75.0%) 둔화폭이 크지 않고 가이드스가 예상을 상회할 경우,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주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1] 근원 상품물가: 2개월 연속 상승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그림2] 선물시장: 12월 금리 인하 기대 후퇴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삼성 Kodex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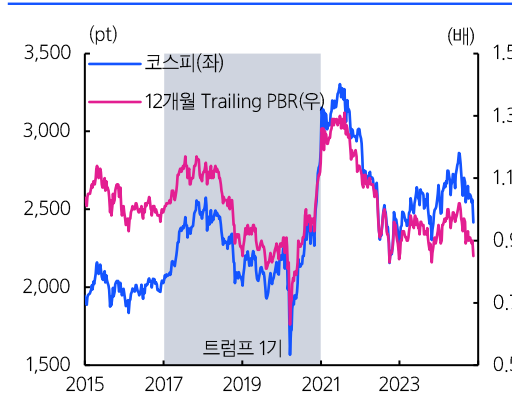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낙폭이 컸던
코스피

코스피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무역분쟁 격화 우려로 속절없이 하락했다. 5일부터 15일까지 코스피(-6.2%)는 대미 무역흑자국 대만(-1.6%), 독일(-0.2%) 등과 비교해도 낙폭이 두드러졌다. 15일 코스피는 12개월 Trailing PBR 기준 0.85배를 기록했는데, 이는 트럼프 1기(2020년 제외) 코스피 평균인 1.01배를 한참 하회하는 수준이다. 무역분쟁이 격화되던 시기에 코스피가 0.81배에서 저점을 형성했던 점을 감안하면, 코스피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분할 매수에 유리한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된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코스피 저가 매력 부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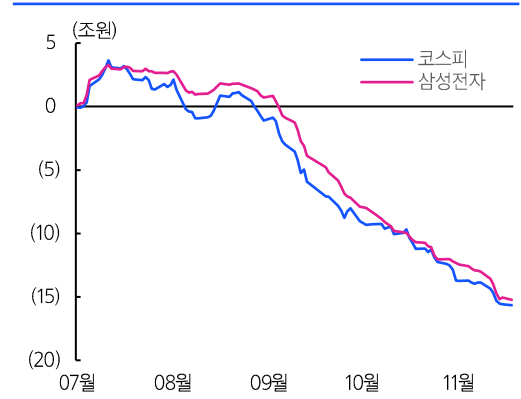
한편, 외국인은 하반기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15.7조원을 순매도하면서 수급 변동성을 높였다. 삼성전자를 15.2조원 순매도하면서 사실상 삼성전자를 판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장 마감 후 향후 1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3조원 상당의 주식은 3개월 내 소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주가 방어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외국인은 이날 13거래일만에 삼성전자를 순매수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코스피의 저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림3] 코스피 추이



※ 자료 : Quantiwise, 삼성자산운용

[그림4] 외국인누적순매수: 코스피 vs. 삼성전자



※ 자료 : Quantiwise, 삼성자산운용

●●● Viewtiful Week를 위한 삼성 Kodex ETF 3

01

Kodex 200
(종목코드:069500)

대한민국 주시시장을 대표하는 상위 200여개 종목에 분산 투자

- 한국 유가증권시장 200개 종목으로 구성된 KOSPI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 주요 투자대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현대차 등
- 합성총보수 : 연 0.1615%,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0.0185% 발생,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02

Kodex
코리아밸류업
(종목코드:495850)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 추진 중인 100개 우량 기업에 선별 투자

-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수혜 예상: 금융당국은 밸류업 펀드 조성 및 집행 예고
- 주요 투자대상: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등
- 총보수 : 연 0.0099%(운용 0.0029%, AP 0.001%, 신탁 0.003%, 사무 0.003%),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03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
(종목코드:448330)

삼성전자 주식 30%, 국고채 70% 비중으로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상품

-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한 채권혼합형 ETF
- 주요 투자대상: 삼성전자, 29년 3월 만기 국고채, 26년 12월 만기 국고채 등
- 합성총보수 : 연 0.1461%,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66% 발생, 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나 본 자료의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관련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료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구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